



유럽 14개국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유럽산업안전보건 연구파트너십 추진

유럽의 주요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2008년 11월 더블린에서 유럽산업안전보건연구파트너십(PEROSH)을 발족하였다. 이번 연구파트너십은 2003년에 이미 실시된 바 있으며, 새로운 위험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4개국 15개 기관이 참여하여 산업 재해 및 질병예방을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럽산업안전보건연구파트너십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작업 방법 및 신기술의 개발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력의 웰빙을 유지·증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럽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유럽 14개국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연구 협력사업이다.

이번 협력사업은 유럽 내의 안전보건 연구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전략과 기법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유럽산업안전보건연구파트너십(PEROSH) 주요 연구분과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위험성(Emerging Issues)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용, 조기퇴직, 세계화, 결근 및 예방 등의 주요 현안 사항은 전체 안전보건 분야에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 가능한 (10년 이후)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안전보건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작업조직 및 사회심리적 요인(Work Organisation and Psychosocial Factors)
 - 작업조직 및 사회심리적 요인과 관련해서 산업재해, 근골격계질환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조직과 근로 주체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 건강한 작업장 증진(Promoting a Healthy Workplace)
 - 건강한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 및 작업장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며 평가를 실시한다. 생활방식의 변화 및 노동인구의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건강증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과 관련한 정보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산업보건동향



EU

• 나노기술 및 나노물질(Nanotechnology and NanoParticles)

-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새로운 위험요인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나노기술과 나노물질은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위험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유럽산업안전보건연구파트너십(PEROSH)은 유럽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공동 연구 프로젝트 실시, 연구결과 공유 및 전문가 풀(Pool) 공유를 통한 연구분야 강화 및 공동 대응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보 수요자 중심의 지식공유 및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적 대화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유럽산업안전보건연구파트너십(PEROSH) 참여국가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독일 : 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 및 산업안전연구원(BGIA) 등 2개 기관
- 영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Health and Safety Laboratory)
- 프랑스 : 국립산업안전연구원(INRS)
- 핀란드 :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원(Finnish Institute for Occupational Health)
- 벨기에 : PREVENT 등 14개국 15개 기관

*PEROSH : Partnership for European Research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AuA : Bundesanstalt fü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

*BGIA : Berufsgenossenschaftliches Institut für Arbeitsschutz

*INRS :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t de Sécurité

〈출처〉 <http://www.perosh.org/home.html>



EU

(2009년 1월 20일자 EUOSHA 발표자료)

유럽산업안전보건청, 사회심리적 문제 분야의 위험성 예측 보고서 발표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에서는 유럽 위험성 예측 프로그램의 하나로 근로자의 안전 보건과 관련한 사회심리적 문제에 대한 예측 보고서를 발표하고, 새로이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회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및 향후 중점 추진 사항 등을 지적하였다.

보고서 발표 배경

- 유럽지역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 안전보건에 대한 새로운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위험성은 일반적인 물리적, 생물학적 및 화학적 문제를 포함하여 사회심리적(Psychosocial) 문제가 안전보건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2005년 제4차 유럽근로환경조사(Four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에 따르면, EU 15개 국가 근로자의 약 20%는 직업성 스트레스로 인해 본인의 건강상태가 위험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업성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EU 15개 국가에서 지출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200억 유로(원화 약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2002년)된 바 있다.

EU에서는 향후 부각되는 주요 사회심리적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 및 직업 불안정성으로 인한 문제
 - 현재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작업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근로자의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 직업성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인한 문제
 - 작업조직 및 작업방법이 일반 근로자 위주로 구성된 현재의 작업형태는 향후 노동력이 고령화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작업환경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과중노동으로 인한 문제
 - 동일근무량에 비해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강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근로자수 감소로 인해 개인별 업무량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 사업장에서의 폭력 및 협박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감정 문제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일중독,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은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건강

국제산업보건동향



EU

을 위협하는 등 지속적인 근로와 일상생활 간의 불균형이 사회심리적 문제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UOSHA :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출처〉 <http://osha.europa.eu/en/publications/reports/7807118/view>

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